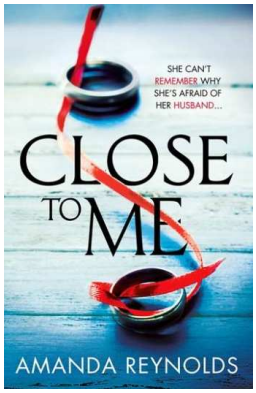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LOSE TO ME
가제 : 내게로 가까이
저자 : Amanda Reynolds
출판사: Wildfire(Headline)
발행일: 2017년 7월 27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미국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 출신 배우, 킴 캐트럴의 프로듀싱으로 *TV* 프로그램 제작 확정**
***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러시아 판권 계약 체결**
*** "첫 페이지부터 결말을 궁금하게 만든 이야기. 작가는 서두르지 않고 주인공의 과거를 보여주며 솜씨 좋게 비밀을 한 겹씩 벗겨내며 독자들이 계속 페이지를 넘기게 만든다." – 베스트셀러 소설 『*The Letter*』의 작가 캐서린 휴스**

자식 둘은 성인이 되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은 호화로운 집 안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다. 2층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사람은 조 하딩. 아이들의 엄마이자 롭 하딩과 결혼한 지 25년이 된, 쉰다섯 살의 아내이다. 괜찮은 거냐고 소리치는 남편의 목소리와 얼굴 사이로 처음 듣는 음성과 사람들이 북적대는 가운데, 조는 의식이 점점 흐릿해진다. 떨어지기 직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해보라는 누군가의 말에, 조는 둘째 아이 때문에 슬펐다고 이야기한다. 바로 어제 둘째 핀을 대학 기숙사에 데려다 주고 부부 둘만 집에 돌아와 아이의 빈 침대를 가만히 쓸어보던 기억이 난 것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정신을 잃은 조는 병원에 실려가고, 깨어났을 때 기억도 그대로였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과 담당 의사의 표정은 썩 좋지 않다. 핀이 대학에 입학한 건 어제가 아니라 1년 전 일이었기 때문이다. 조는 사고 직전의 일은 물론, 최근 1년의 기억을 모두 잃고 말았다.
뇌에 아무런 문제는 없으니 기억이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조는 바로 퇴원한다. 남편은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웠지만 의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문제는 조가 기억을 잃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부터 남편에게 그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그는 괜찮다, 다 잘 될 거다라는 말 외에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한다는 점이었다. 온몸에 기력도 없고 혼란스러워 더 따져 묻지는 않았지만 조는 뭔가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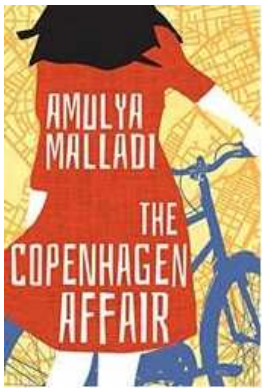
연치 않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왜 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아이들에게서 거리감이 느껴질까? 남편이 하는 말이나 행동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본능적으로 그를 피하고 싶고 밤에 침대에 누울 때마다 최대한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까? 잃어버린 1년,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만은 분명하다.

조는 어떻게든 기억을 되살리려고 애쓰지만, 남편과 아이들은 반대로 그 시간들을 어떻게든 묻어두려고 안간힘을 쓴다. 조가 봉사활동을 했던 청소년 센터의 사람들, 센터 직원인 닉과 가장 친한 친구인 로즈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남편이 그들과 조 사이에서 오간 이메일이나 연락 기록을 추락사고 이후 모두 삭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완벽하게 가정을 꾸리고 싶은 열망에 아이들을 종용하고 마음대로 하려고 한 부분은 있지만 늘 남편과 아이들에게 충실한 아내였다고 생각했지만, 속속 드러나는 흔적들은 그 반대를 이야기한다. 어쩌면 자신이 외도를 하고, 가족들 모두를 속이고, 혼자 새 삶을 시작하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문득문득 머릿속을 스쳐가는 남편의 일그러진 얼굴, 자신을 벽에 거칠게 밀치는 폭력적인 행동들이 기억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소설은 조가 사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가며 이야기하고 조의 시선과 더불어 아이들, 남편의 시선에서 이 가족에게 일어난 지난 1년간의 사건을 서서히 펼쳐 보인다. 부부의 큰딸, 새시의 연인 토머스와 조 사이에서 벌어진 놀라운 일들, 그리고 청소년 센터의 닉과 조의 이상한 관계, 그리고 남편이 오랫동안 지속해온 애나라는 여성과의 이중생활을 하나씩 알게 된 조는 남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종용하지만, 그는 끝까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한다. 조는 사고를 당한 바로 그 날, 자신이 이 모든 배신과 거짓말에서 벗어나 집을 떠나기로 굳게 마음 먹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낸다. 텅 빈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편을 기다리며 작별을 준비했던 조가 계단에서 떨어진 건 과연 남편의 말대로 사고였을까? 그녀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한 누군가가 저지른 일일까? 이야기는 그 마지막 수수께끼를 향해 마지막까지 팽팽한 긴장 속에서 이어진다.

<저자 소개>

아만다 레이놀즈(Amanda Reynolds)는 보조 교사, 영업 교육 담당자로 일하다가 온라인 리뷰 매거진 「The Cheltonian」에서 도서 리뷰를 담당했다. 현재는 영국 코츠월드에 살면서 글쓰기 강사 겸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제목 : THE COPENHAGEN AFFAIR
가제 : 코펜하겐에서 일어난 일
저자 : Amulya Malladi
출판사: Lake Union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9월 26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소설/ 여성소설

* **"한 사람이 변화하는 과정과 덴마크에서 벌어지는 즐거운 사건들이 잘 균형을 이룬 이야기" – 북리스트**
* **"위기에 처한 결혼생활, 아내의 위태로운 감정 상태, 국제적인 사업 거래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덴마크의 수도에서 펼쳐진다. 성공과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 우리가 기꺼이 감수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지 상기시켜주는 소설이다." – 베스트셀러 『*Sisters One, Two, Three*』의 작가 낸시 스타**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은 온갖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정신 무장이 제대로 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지식이나 능력이 훨씬 부족한 사람보다 오히려 훨씬 정신력이 약할 수도 있다. 늘 인정 받는 사람도 속으로는 늘 불안과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도 많다.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의 사투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터져버리는 순간 수많은 현대인을 덮친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다. 재무 컨설팅 전문가로 오랫동안 일해온 산야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아예 처음부터 산야를 지목하는 고객들이 줄을 설 만큼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한 실력 있는 컨설턴트, 미국 곳곳은 물론 유럽의 업체들의 재무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선시켜 손해를 막고 수익을 늘려주는 산야의 기막힌 솜씨는 누구도 흠잡을 곳이 없었다. IT 분야 컨설턴트로 실리콘 밸리에서 한창 잘 나가는 업체 공동대표인 (게다가 친구 한 명을 빼고 다들 잘생겼다고 난리인) 남편에 UCLA에 다니는 영리한 딸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고급 주택에 살고 있는 산야는 누구에게나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다. 수십 년을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실력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중간 관리자급 이상 승진이 안 되는 것이다. 다들 의아해했지만, 산야는 그 이유를 알고 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내가 생각만큼 유능하지 않다는 진실이 바로 오늘, 다 들통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초조해할 만큼 스스로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이 거의 바닥이라는 것, 그래서 회사 임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거나, 성공하고픈 야망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점이 승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으리라고 산야는 스스로 평가했다. 그래서 문제의 '사고'가 벌어진 날, 회사 임원들이 모인 회의장에 갑자기 호출되고 공동 대표로 승진시키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 산야는 그 자리에서 와르르 무너졌다. 겨우 견뎌왔던 가느다란 긴장의 끈이 탁 끊어진 것이다.

뛸 듯이 기뻐해도 부족할 판에 승진 소식을 듣자마자 신경쇠약에 걸려 우울증의 늪으로 들어가버린 산야를 가장 이해하지 못한 건 부모님이었다. 산야가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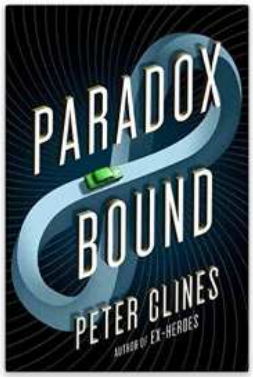
바닥이었던 이유도 사실 부모님에게 있었다. 인도 출신의 이민자인 엄마아빠는 두 분 다 보스턴에서 의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산야와 여동생이 모두 뒤를 잇기를 고대했다. 산야는 의대에 가지 않은 것부터 그 기대를 무너뜨렸고 이번 '사건'으로 아주 나약하고 무능한 아이로 낙인이 찍힌 것이다. 예전 같으면 부모님의 실망도 큰 압박으로 다가왔겠지만,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불 밑에서 움츠린 채 보내고 있는 산야에게 더 이상 남의 생각, 시선은 중요치 않았다. 과거도, 미래도,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이대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이불 속에서 영원히 살고 싶을 뿐이었다.

그런 산야를 끄집어낸 건 뜻밖에도 남편에게서 나왔다. 유럽에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덴마크의 IT 컨설팅 업체 한 곳을 인수할 계획인데, 합병 작업을 마무리하고 새 회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CEO로 1년 정도 코펜하겐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다. 남편은 산야에게 같이 가서 여행도 하고, 기분전환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설득한다. 딸아이까지 나서서 덴마크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며 부추기는 통에 만사가 귀찮았던 산야는 남편을 따라 나선다. 나중에야 덴마크는 여성 자살률이 세계 2위에다 1인당 음주량이 세계 2위에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울증 약과 신경안정제 소비량이 엄청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끌려오듯 도착한 덴마크에서 산야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과 마주한다. 가장 놀라운 사건은 바로 낯선 남자에게 마음을 홀랑 빼앗긴 일이었다.

앤더스 라븐이라는 남자는 처음 큼직한 흉터 자국으로 시선을 끌었지만, 산야는 오랜 결혼생활 내내 남편에게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따스하고 자상하고 세심한 배려를 받으며 금세 그에게 푹 빠져버렸다. 회사 일을 그저 가진 능력으로 꾸역꾸역 해냈듯이 맞벌이 부부임에도 전업 주부처럼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하면서도 억울하다거나 힘들다고 생각조차 못해본 산야는 자신을 다른 목적 없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바라보는 앤더스와 함께 하면서 새로운 행복을 느낀다. 그런데 앤더스는 다름아닌 남편이 인수하려는 회사의 대표로 드러나고, 그가 회사를 넘기는 방식에서 불법과 사기 범죄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산야의 남편 역시 거래 과정에서 수상한 부분을 발견해 추적에 나서고, 유령회사와 앤더스의 회사 간에 이루어진 이상한 돈의 움직임과 더불어 겉보기에 아주 탄탄해 보였던 이 회사가 빚더미에 올라 앉은 시한폭탄 같은 곳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낸다. 그러나 경찰은 결정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추가 수사나 처벌이 힘들다며 난색을 표한다. 이 거래는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 산야를 향한 앤더스의 감정도 모두 가짜였을까? 시간이 갈수록 그에게 더 깊이 빠진 산야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앤더스를 따라갈 수 있을까? 우울증, 결혼생활, 가족의 의미, 사랑과 배신, 믿음,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용기와 어둠을 뚫고 일어서는 투지에 관한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아뮬랴 말라디(Amulya Malladi)는 대학에서 공학과 저널리즘을 공부하고 마케팅 업체 대표로 일하면서 글을 쓰고 있다. 『A House for Happy Mothers』, 『The Sound of Language』, 『The Mango Season』 등 일곱 편의 소설을 발표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번역 출간됐다.



제목 : PARADOX BOUND
가제 : 시간여행자
저자 : Peter Clines
출판사: Crown
발행일: 2017년 9월 26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소설/ SF 스릴러

*** "시간이 순식간에 흐른 것처럼 느껴지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 퍼블리셔스 위클리**
*** "스팀펑크 장르에 자유 수호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가치가 결합된 활기찬 모험 소설" – 커커스 리뷰**

흥미로운 일은 고사하고 모든 변화에서 뒤쳐진 메인 주의 작은 마을 샌더스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 200년의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시간여행자, '해리'로 불리기를 더 좋아하는 해리엇은 수십 년이 흘러도 점점 낙후되기만 할 뿐 거의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한 이곳에 두 번 찾아온다. 희한한 옷차림에 영 어울리지 않는 차를 몰고 나타나는 해리엇이 샌더스에 올 때마다 마주친 아이가 있었으니, 바로 이곳에서 나고 자란 엘리였다. 두 번의 만남이 흐지부지 스쳐간 후 내내 그 일을 잊지 못한 엘리는 해리엇이 또 나타날 것이라 확신하며 기약 없는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린다. 대체 해리엇은 왜 하필 샌더스에 두 번이나 나타났을까? 호기심에서 시작된 엘리의 끈질긴 기다림은 마침내 해리엇과의 재회로 해피엔딩을 맞이할 뻔 했지만, 다시 만난 건 시작에 불과했다. 세 번째 만남에서 해리엇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나면서 엘리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위험한 모험에 가담한다.

엘리가 처음 해리엇을 만난 건 여덟 살 여름방학 때였다. 집에서 만화나 보면서 뒹굴고 싶은 엘리의 마음을 다 읽은 엄마는 밖에 나가 놀라며 억지로 등을 떠밀고, 엘리는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끌고 이곳 저곳을 배회한다. 친한 친구들은 감기 때문에 외출을 못하거나 여름 캠프에 가버려 놀 사람도 없었다. 먼지 풀풀 날리는 길을 떠돌며 엄마 몰래 모아둔 용돈으로 먹지 말라는 간식을 신나게 사먹은 뒤 잠시 쉬고 있을 때, 차 한대가 달려와 멈추더니 예쁘장한 청년이 내려 차를 고치기 시작했다. 엘리의 눈을 사로잡은 건 그 형이 입은 옷. 독립기념일 날 마을 퍼레이드에서 자주 보았던 옛날 사람들 복장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본 네트 위에 올라간 모습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엘리는 가까이 다가갔다. 열 살쯤 더 많아 보이는 형은 이것저것 물어대는 엘리에게 다짜고짜 위험하니 얼른 집에 가라고만 했다. 긴 윗옷이 바람에 날릴 때, 엘리는 문득 이 낯선 형이 허리춤에 총을 두 대나 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자신을 '헨리'라고 소개한 형이 엘리가 건넨 물을 벌컥벌컥 막 들이킬 때 저 멀리서 먼지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험상궂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탄 차들이 여러 대 달려오고 있었다. "몇 년 뒤에 보자!" 뜻 모를 말을 남긴 채 헨리 형은 쏜살같이 차에 올라탔고 그대로 사라졌다. 소음도 먼지도 다 가라앉았을 때, 엘리는 그 만남이 꿈처럼 가물가물해졌다.

사춘기가 시작된 열세 살의 어느 날 두 번째 만남이 역시나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들과 탄산음료, 만화책을 싸 들고 허름한 폐가 아지트에 모인 엘리는 잠시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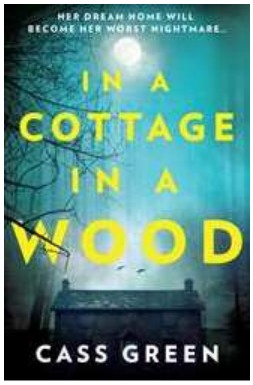
싸움에 휘말린다. 키에 비해 덩치가 더 큰 편이었지만 힘은 별로 없어서 싸움에서 형편없이 밀리고 있을 때, 박물관에서 튀어나온 듯한 차 한대가 나타났다. 1920년대 모델로 알고 있는 포드 자동차도 가관이었지만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더 가관이었다. 옷차림이 꼭 독립전쟁 시대 사극이라도 찍다가 온 사람 같았기 때문이다. 호리호리하고 큰 키에 곱슬거리는 금발의 그 운전자는 엘리 쪽으로 다가와 무슨 일로 싸우냐고 물었다. 더듬더듬 대답하는 엘리를 보며, 그는 화들짝 놀란다. 바로 5년 전, 마을 어딘가에서 만났던 '헨리'가 다시 나타나 엘리를 알아본 것이다! 단추가 여러 개 열려 있는 셔츠 사이로 헨리 '형'의 '가슴'을 발견하고 혼란에 빠진 엘리에게, 그는 본명이 헤리엇인데 그런 여성스러운 이름은 딱 질색이라며 그제야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을 밝힌다. 얼떨떨한 엘리에게 헤리엇은 물을 연료로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도 있다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남기고 또 다시 순식간에 사라진다. 이번에는 엘리의 머릿속에도 강렬한 기억으로 깊이 새겨졌다.

시간이 흘러 엘리는 대학에 들어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은행 전산 부서에서 근무하는 스물아홉 살 청년이 되었다. 엄마가 수시로 푸념하듯 전공 자체가 썩 전망이 밝은 분야가 아니기도 했지만 워낙 큰 야망이 없는 성격이라 엘리는 대체로 만족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겨워서라도 성인이 되자마자 달아난 이 구석진 동네에서 30년 가까이 눌러 살고 있는 엘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연구 대상이 되어 있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아직 비디오 대여점이 사라지지 않은 이 후진 곳을 왜 떠나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엘리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해리엇과의 세 번째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만나면 절대 그냥 놓치지 않고 왜 이 마을에 나타나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내리라는 생각 하나로 지금까지 기다려왔다.

마침내 다시 모습을 나타난 해리엇. 사실 그녀는 '더 체인'이라는 기밀 연맹에서 시간여행을 하는 '사냥꾼'이다. 미합중국 '건국의 아버지들'로 불리는 1787년 최초의 헌법 제정자의 요청을 받고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 나섰다가 엘리와 두 차례 마주치고,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일명 '얼굴 없는 자들'로부터 계속 쫓긴 것이다. 어쩌다 아메리칸 드림을 손에 넣고 꽁꽁 숨겨두었던 이 암흑의 세력은 1960년대 초, 자신들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소중한 보물을 잃어버렸고 그때부터 잃어버린 꿈을 되찾으려는 더 체인과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들의 싸움이 시작됐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엘리는 해리엇과 함께 200년의 시간을 넘나들며 사라진 아메리칸 드림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뒤쫓는 세력은 점점 더 교활하고 잔학해지는데.... 두 사람이 동료들과 함께 미국의 여러 시대를 오가는 동안 제임스 딘, 존 헨리 등 역사적인 인물들이 등장하며 흥미를 더한다. 작가는 역사 속 실존 인물과 전설로만 전해지는 미지의 인물들을 다양하게 조명하고 근거 없이 입 소문으로 떠도는 이야기들과 숨겨진 진실을 골고루 다루며 두 주인공의 치열한 싸움 속에 미국의 과거 역사를 잘 버무려 함께 제시한다. 작가의 놀라운 상상력에 액션, 서스펜스 요소까지 더해진 흥미로운 소설이다.

<저자 소개>

피터 클라인스(Peter Clines) 영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고고학, 양자물리학을 공부한 뒤 글을 쓰기 시작했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관한 기고문과 단편소설을 출간하였으며 『The Fold』와 『Ex- Heroes』 시리즈 등을 발표했다.



제목 : IN A COTTAGE, IN A WOOD
가제 : 숲 속, 그 오두막에서
저자 : Cass Green
출판사: HarperCollins
발행일: 2017년 9월 21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심리 스릴러

* **아마존, 아이북스*(iBooks)*에서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The Woman Next Door*」의 작가의 신작**
* **"감춰진 비밀에 인생을 망가뜨릴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오싹한 심리 드라마" – 사이콜로지 매거진*(Psychologies Magazine)***
* **"「걸 온 더 트레인」과 「노트 온 스캔들」이 결합된 듯한 소설. 엄청난 흡입력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다." – 베스트셀러 「*He Said/She Said*」의 작가 에린 켈리**

생전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뭔가를 내밀면서 꼭 좀 받아달라고 간청한다면, 뭘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면 대부분이 얼떨결에 일단 받게 될 것이다. 12월, 크리스마스가 성큼 다가온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와 또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아쉬움이 교차하던 어느 날 새벽 런던 시내를 바삐 걸어가던 한 여성은 얇은 드레스만 있고 서 있는 여자를 발견한다. 그냥 지나치면 후회할 것 같아 멍하니 템즈 강을 응시하고 있던 여자에게 가보기로 마음 먹은 그 순간이 30여 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살낸 시작점이었음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여자는 작은 핸드백에서 꺼낸 봉투를 건네며 꼭 받아달라고 했고, 부질없는 말싸움을 벌이기 싫어 받아 든 순간 가녀린 몸을 템즈 강으로 던져버렸다.

같이 살던 남자친구와 6주 전 헤어지고 지낼 곳을 구하지 못한 네브는 런던 외곽에 사는 언니와 형부 집에 잠시 얹혀 살았다. 이별의 충격과 서글픔은 연말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더욱 날카롭게 일어나 술만 입에 대기 시작하면 멈추고 싶지 않은 충동이 일었다.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 결혼하고 아이를 돌보거나 임신 중이라 더 이상 함께 밤새도록 놀아줄 상황이 되지 않아 네브는 홀로 밤 늦도록 술을 마시곤 했다. 그 날, 운명이 뒤바뀐 그 문제의 날도 회식을 마치고 바에서 혼자 술을 홀짝이던 네브는 말끔한 차림의 남자와 만나 호텔 방까지 따라갔다. 새벽 3시, 잔뜩 취해 그 방 문턱을 넘어선 지 한 시간이 겨우 지났을 무렵 잠에서 깬 네브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향한다. 이런 한심한 생활은 그만 하자고 다짐하며 심야 버스를 타러 걸어가던 중, 창백한 피부, 백발에 가까운 금발 머리를 휘날리며 템즈 강변에 선 여자를 발견한 것이다.

새벽에 외투도 없이 서서 얼굴색이 파랗게 질린 여자를 그냥 외면할 수는 없었다. 네브가 무슨 일이냐고 몇 번을 물어도 입을 열지 않던 여자는 네브가 어쩔 수 없이 돌아서려는 순간,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참 예쁘시네요." 예상치 않은 말에 화들짝 놀란 네브는 거의 화를 내다시피 아니라고

반박하고는, 다시 천천히 말을 걸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자는 다짜고짜 네브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고, 성까지 다 얘기해달라고 애원하더니 네브가 얼떨결에 이름을 말해주자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한다. 그리고 노란 봉투를 하나 쥐어주고, 이제 가던 길을 가라고 한다. 뭔지도 모르는 봉투를 받고 싶지 않았지만 자신을 이사벨이라고 밝힌 이 여자의 이상한 고집에 자꾸 설득 당한 네브는 일단 하라는 대로 해주고 집까지 데려다 줄 생각이었지만, 이사벨은 네브가 끝내 혼자서는 갈 수 없다고 말하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워털루 다리 아래로 몸을 던졌다.

눈 앞에서 사람이 자살하는 광경을 본 네브는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경찰서에서 진술을 하고 다시 일상은 시작됐지만 이사벨의 파리한 얼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이사벨의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가 전화를 걸어, 이사벨이 죽기 직전, 네브 앞으로 콘월의 집 한 채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것이다. 이사벨은 노란 봉투를 주면서 친절하게 대해 준 감사의 표시라고 이야기했지만, 잠깐 도와주려던 행인에게 집을 남기는 건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낼 곳이 없는 네브는 하루 아침에 생긴 이 엄청난 재산에 강한 유혹을 느끼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한다. 팔아서 런던에 집을 구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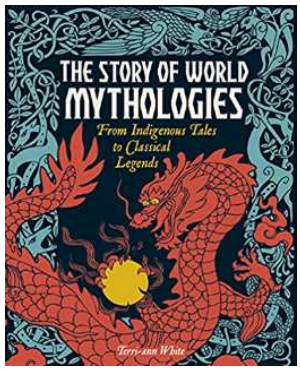
그러나 막상 콘월의 집 주소를 찾아간 네브는 처음부터 오싹한 기운을 느낀다. 창문에 감옥처럼 철창이 달려 있고 집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데다 부엌에 죽은 까치까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방문은 죄다 잠금 장치가 망가져 있고, 무엇보다 아무도 없는 빈 집인데 누가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대체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사벨은 런던에 나타나기 전, 이 집에서 살았을까? 일단 머물면서 알아보기로 결심한 네브에게 이 외딴 집에 얽힌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사벨이 겪은 일들을 알아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네브는 그 운명의 날, 워털루 다리에서 새벽에 이사벨과 마주친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믿기 힘든 진실과 마주한다. 누군가 네브를 이미 오래 전부터 따라다니며 뒷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날의 만남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계획된 일이었다. 모두 이 섬뜩한 집을 네브에게 넘기기 위한 치밀한 작전이었다.

이사벨의 정체를 파헤치던 네브는 평생 모르고 살았던 출생의 비밀을 발견하고, 수십 년 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사건과 친모의 죽음이 자신을 이 집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게 만드는 스토리라인과 조금씩 드러나는 섬뜩한 비밀이 내내 호기심을 자아내는 심리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스 그린(Cass Green)은 수상 경력이 있는 YA 소설 작가 캐롤라인 그린(Caroline Green)의 가명이다. 데뷔 소설 『Dark Ride』로 'RONA Young Adult Book'으로 선정되고 '와버튼 굿 리드 상(Waverton Good Read Award)'을 수상했다. 또 다른 작품『Cracks』은 Radio4의 '오픈북 프로그램' 추천도서로 선정되었으며 『Hold Your Breath』는 올드햄 도서 상(Oldham Book Award)을 수상했다. 일반(성인) 소설로 처음 발표한 『The Woman Next Door』는 전자책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현재 이스트 바넷 스쿨과 시티 대학교에서 글쓰기 강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NON- FICTION



제목 : THE STORY OF WORLD MYTHOLOGIES
가제 : 세계의 신화
저자 : Terri- ann White
출판사: Arcturus Publishing
발행일: 2017년 9월 15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문학(신화)

*** 전 세계의 다양한 신화를 고대 인물, 신비한 생명체, 괴물, 영웅들이 등장하는 풍성한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소개한 책**

사람이 되기 위해 동굴에 들어간 곰과 호랑이의 처절한 사투가 등장하는 단군 신화를 두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진지하게 따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알에서 태어났다는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나 고향에 돌아가려고 수십 년을 떠돌아야 했던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다. 신화를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이유는, 상상력이 적극 발휘된 요소와 함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장소, 기후 변화, 중대한 사건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실존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도 있기 대문이다. 또한 현실과의 일치 여부와는 별개로 그 속에 힘든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혜와 그 이야기가 전해지던 시절의 사회적 관습, 전통, 도덕적 가치와 책임, 의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도 신화의 가치를 높인다. 저자는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대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 매력적인 신화와 전설, 민간설화를 일러스트레이션과 함께 소개한다. 시대를 뛰어넘어 사람들에게 웃음과 감동,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속에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하는 인류 공통의 가치와 생존 기술, 생활 방식과 규칙이 속속 담겨 있다.

신화는 물론 상상조차 하기 힘든 고대 문화에 관한 글이나 자료를 접할 때는 "에이, 설마" 하고 진위를 따지려는 마음을 접고 머릿속으로 그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상상력으로 빚어진 이야기는 오직 인간만이 보유한 상상력을 발휘해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신화 속에서는 신들이 인간과 싸우고 친구가 되고 사랑하는 등 인간처럼 행동하고 동물은 물론 바다, 산과 같은 자연도 나름의 의지와 주관대로 행동한다. 해태나 사이렌처럼 존재 자체가 상상의 산물인 경우도 있다. 이성적인 판단과 정확한 계산이 머릿속을 지배하는 현대인에게는 이들이 그저 환영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이들의 이야기 속에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진실과 즐거움이 담겨 있다. 여타 문학작품들처럼 고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좋

은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처음 전해진 시기를 생각하면 인간의 조상들이 자연의 힘과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위로와 자신감을 얻고자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인간 본연의 심리적 특성, 생존 기술을 통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신화는 인간의 전통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시대와 상황에 따라 어떤 시각이 형성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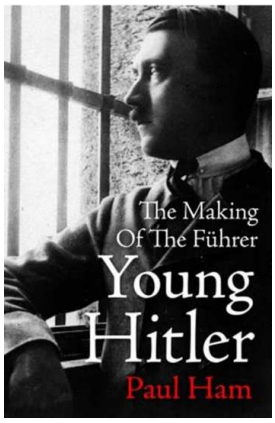
널리 알려져 대부분 다 아는 신화들과 많이 알려지지 않은 흥미진진한 독특한 신화와 전설까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멋진 그림과 함께 제공된다. 큰 주제별로 정리돼 궁금한 이야기나 특히 관심이 가는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신화, 전설, 민간설화
신화의 탄생
대홍수
우주
신과 인간에 관한 이야기
전설적인 영웅, 환상의 동물들에 얽힌 사건
사기꾼들
신화적 서사시
죽음과 사후세계
역사와 전설, 신화의 경계가 모호한 이야기들
관습과 대중종교
결론

<저자 소개>

테리안 화이트(Terri- Ann White)는 서호주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치다가 동 대학에 '고등학술연구원'을 설립했다. 2006년부터 동 대학 출판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문학, 춤, 예술, 음악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에 자문을 제공해 왔다. 소설, 학술문서, 단편집 등 다양한 저서를 발표했고 시집과 자서전 등 논픽션 도서들을 편집했다.



제목 : YOUNG HITLER: THE MAKING OF THE FUHRER

가제 : 젊은 날의 히틀러: 나치 총통의 탄생

저자 : Paul Ham

출판사: Doubleday

발행일: 2017년 11월 2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전기/ 역사

*** 고의적으로 왜곡되거나 감춰진 히틀러의 젊은 시절,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되기 전 그 미래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시기의 삶**

*** *1*차 대전에 참전한 *25*세를 계기로 사상도, 생각도, 미래의 방향도 모조리 바뀐 히틀러의 생애를 추적한 전기**

역사상 그 어떤 리더나 정치 활동도 아돌프 히틀러와 나치당만큼 세상에 재앙과 같은 사건들을 일으키며 권력을 거머쥔 사례는 없다. 독일의 지도자, 유럽을 지배하고 유대인을 몰살한 히틀러는 언제부터, 무엇을 계기로 잔혹한 독재자의 모습을 띠기 시작했을까? 역사에 남긴 히틀러의 이례적인 발자취만큼 그에 대한 탐구와 조사는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나치당의 총통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이후의 일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가까운 나치 공군의 총사령관이자 한때 히틀러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헤르만 괴링이 밝힌 것처럼 그가 '비엔나의 게으름뱅이'로 불리던 하찮은 존재이자 아무런 야망도 없고 고집불통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성질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괴짜로 여겨지던 아이가 어떻게 역사상 가장 잔인한 국가지도자의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저널리스트 출신의 저자는 히틀러가 스물다섯 살이던 1914년에 참전한 1차 세계대전이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놓았다고 이야기한다. 젊은 군인의 한 사람으로 전쟁터에 나가 극심한 부상으로 실명의 위기를 겪으면서 그의 머릿속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끔찍한 꿈이 몽글몽글 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책은 그 시기에 히틀러의 삶을 집중 조명하여 자기 주장만 세던 외톨이가 극단적인 정치 지도자로 바뀐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한다.

역사가 이안 커쇼는 "히틀러 치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그가 1차 대전과 그 이후에 겪은 일들이 없었다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 '겪은 일'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누구든 어린 시절이나 청년기에 극단적인 일을 겪은 경우 평생 그 일에 강력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히틀러에게 그 일은 서부 전선에서 복무한 기억이었다. 처음 시작한 군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느낀 그는 대부분의 동료 병사들과 달리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전투에서 질 경우 격분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얼른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던 병사들 곁에서 그는 휴전으로 전쟁이 종료된 것에 깊이 낙담했다. 전쟁이 끝나고 머스터드 가스에 맞아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 동안, 히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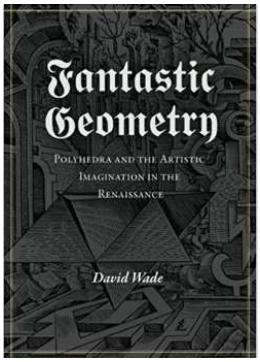
러의 캄캄한 머릿속에는 독일이 패하고 황제가 달아나고 독일군이 형편없이 싸운 기억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씨앗이 되었다. 휴전 협정에 동의한 자들을 '범죄자'로 보고 복수를 결심한 데 이어, 독일군의 등을 칼로 찌른 것이나 다름 없다고 여긴 사회주의자들에게도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대인이야말로 독일에 가장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인종이라는 강력한 인식이 뿌리를 내렸다. 저자는 히틀러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여 1차 대전에 참전한 기록, 정치인으로 첫 발을 들인 시절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신화와 왜곡 뒤에 가려진 그의 젊은 시절을 생생하게 되살린다. 이를 통해 히틀러를 그저 인류 역사에서 어쩌다 튀어 나온 사고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달려들고 혼란을 즐기는 극단적인 선동정치가의 한 예로 볼 수 있는지 분석한다.

<목차>

시작하면서: 배경 설명
1. '당시에 나는 모든 것이 날아가는 줄 알았다.'
2. '집에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들은 기억이 없다.'
3. '아버지는 존경의 대상이었지만 내가 사랑한 건 어머니였다.'
4. '학교는 모조리 폭파시켜야 한다.'
5. '이게 독일인가?'
6. '무릎을 꿇은 채 하늘에 감사했다.'
7. '군 생활이 너무 즐거웠다.'
8. '류벤은 자갈더미가 되었다.'
9. '모두가 지켜보는 곳, 그 바로 앞에 서 있었다.'
10. '이제 내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이하 생략, 총 19장과 맺음말, 부록으로 구성)

<저자 소개>

폴 햄(Paul Ham)은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 런던 정치경제 대학교에서 경제사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선데이 타임스」 특파원으로 일했다. 현재는 시드니와 파리에 살면서 역사적 사실을 쓰는 저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평단의 호평을 받은『Sandakan』과 『Hiroshima Nagasaki』, 『Vietnam: The Australian War』 등이 있다.



제목 : FANTASTIC GEOMETRY
가제 : 환상적인 기하학의 세계
(부제 : 다면체,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적 상상력)
저자 : David Wade
출판사: The Squeeze Press
발행일: 2012년 9월 18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예술

***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까지, 독일 특정 지역에서 꽃피운 예술과 기하학, 원근법의 만남과 이 독특한 분야를 이끈 주요 인물들, 작품들을 소개한 책**

2차원 평면에 사물의 거리감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원근법을 표현하고 3차원 도형을 담아낸 그림을 보면 마치 사진처럼 세밀하고 정교한 형태에 절로 감탄이 나온다. 현대에 들어서는 각종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그래픽을 비교적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예술 분야는 물론 게임, 광고 등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16세기 중반에 오직 종이와 펜으로 그린 입체적인 작품들이 성행했던 곳이 있었다. 1560년대 중반, 독일 뉘른베르크 지역에서 등장한 이 작품들은 인쇄와 출판업이 막 걸음마 단계였던 시기에 고급스럽게 양장된 책으로 묶여 배포되었다는 점 또한 특이한 점으로 꼽힌다. 왜 하필 이 시기에, 독일 중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독특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와락 등장했다가 17세기 초에 다시 쇠퇴했을까? 그렇게 완성된 작품집 제목에도 '원근법'이라는 용어가 이미 사용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했던 이 특별한 작품들의 등장 배경과 특징, 당시 기하학적 원근법이 담긴 작품들을 양산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다.

벤첼 잠니처, 로렌츠 스토에르, 요하네스 렌커 등이 해당 시기에 기하학적 원근법을 그림으로 표현했던 인물들로 꼽히는데, 출생일과 사망일자, 뉘른베르크의 명망 있는 시민이었다는 정도는 알려져 있지만 그 외에 정보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전기나 이탈리아 예술사가 바자리가 정리한 화가 목록처럼 일괄 정리된 자료가 따로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이들이 남긴 작품들이 놀라운 이유는 16세기 중반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현대적이고 누구나 쉽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수수께끼 같은 묘한 요소가 남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화가나 작품에 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해서 어떤 의도로, 무엇을 나타내고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추측만 할 수 있다.

저자는 화가의 상상력이 풍성하게 표현된 이러한 작품들은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르키메데스, 유클리드와 같은 고대 기하학 이론의 대표적 인물들이 제시한 개념이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이 독특한 작품들은 넓은 범위에서 독일 매너리즘의 한 가지로 볼 수 있으며, 21세기 다양한 예술 분야에 영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잠재력

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불확실성이 지배하던 시대, 유클리드 기하학이 수학의 주된 분야로 여겨지던 시기에 기하학을 기본 재료로 활용한 순수한 예술 작품에는 시대를 뛰어 넘는 가치가 담겨 있고, 이는 예술적 상상력을 강화시키는 훌륭한 영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작품들과 함께 예술로 승화된 기하학의 환상적인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목차>

머리말
강렬한 아이디어가 시작된 곳
'서방 라틴권'의 부활
북부 르네상스의 기하학과 원근법
1500년대 독일의 기하학 논문
하위 장르의 확산과 쇠퇴
위대한 인물들의 기하학
벤첼 잠니처(Wenzel Jamnitzer)
로렌츠 스토에르(Lorenz Stöer)
독일의 기하학적 원근법을 이끈 그 외 인물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기하학적 원근법에 관한 논문
부록 1- 4

<저자 소개>

데이빗 웨이드(David Wade)는 화가, 건축가, 저술가로 『Pattern in Islamic Art』(Overlook Press and Studio Vista, 1976), 『Geometric Patterns and Borders』 (Wildwood House and Van Nostrand Reinhold, 1982), 『Crystal and Dragon: The Cosmic Dance of Symmetry and Chaos in Nature, Art and Consciousness』 (Destiny Books, 1993), 『Li: Dynamic Form in Nature』 (Walker & Company, 2003), 『Symmetry: The Ordering Principle』 (Walker & Company, 2006) 등을 발표했다.

제목: INTERPRETATION FROM THE MARGINS

가제: 차이의 해석

저자: John D. Caputo

출판사: Pelican

발행일: 2018년 1월 25일

분량: 336 페이지

장르: 철학(해석학)

*** 포스트모던 시대 해석학과 주요 사상가의 연구를 알기 쉽게 설명한 입문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것 중에 해석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 해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순수한 '사실'이 과연 존재할까?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순수한 사실 없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 말장난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전혀 장난스럽지 않은 이 당황스러운 질문이 바로 해석학의 본질이다. 신학, 철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해석학 연구를 이어온 저자는 왠지 어렵게만 느껴지는 해석학의 기본적인 개념과 포스트모던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어난 대대적인 변화, 대표적인 사상가들의 연구 내용을 이 책에서 상세히 정리했다. 과학과 예술에서 탄생한 모든 발명품과 창작품, 정치학에서 민주주의적 자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혁신적인 제도와 전통적인 생활 방식까지, 모두 바탕에는 해석학이 있다. 인간이 인식하고 획득하는 모든 지식에는 해석의 과정이 포함된 만큼, 실제 사실과 해석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고 그러한 차이는 왜 존재하며 어떤 영향을 발생시키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해석학의 유구한 역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종교개혁에서 촉발된 성경 연구부터 시작되어 19세기까지 축적된 해석학 연구를 첫 부분으로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뀐 20세기 해석학을 '포스트모던 해석학'으로 칭할 수 있다. 저자는 이 두 번째 해석학을 주제로 삼아,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분야를 선도한 대표적인 인물들을 소개하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해석학이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까다로운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먼저 1장에서는 포스트모던 해석학의 문을 연 마틴 하이데거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나치당의 열성적인 당원이었던 그가 남긴 저서를 바탕으로, 극히 혐오스러운 정치사상을 가진 이 인물이 어떻게 20세기 철학에 중대한 획을 긋게 되었는지 살펴본다. 2장에서는 전후 시기 하이데거의 이론을 1장과 비교하여 살펴보고, 3장에서는 그의 제자들 가운데 주요 사상가로 꼽히는 가다머의 저서를 중심으로 20세기 해석학이 오른 권위적 입지에 대해 설명한다. 4장에서는 탈구조주의의 선구자인 자크 데리다로 눈을 돌려 주요 저서와 '68년생'으로 통칭되는, 파리에서 저항운동에 앞장선 학생들의 움직임과 사상을 자세히 살펴본다. 이어 5장에서는 탈구조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구조주의 비판의 과정과 그 내용을 설명하고 6장에서는 독일과 프랑스 외에 포스트모던 해석학을 대표하는 사상가인 미국의 로티, 이탈리아의 바티모의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7장부터는 해석학을 실제 포스트모던 사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들

여다볼 수 있다. 7장에서는 정의와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해석학이 얼마나 중요한 기능을 해왔는지 설명하고, 8장에서는 캐나다의 간호사들이 가다머의 이론을 의료보건 분야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 신선한 활용 방식을 소개한다. 9장은 정보기술이 폭발적으로 발달한 현 시대에서 '포스트휴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빅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과 해석학의 관계를 분석한다. 마지막 10장에서는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해석학은 종교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을 소개한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주관적인 해석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통해 개개인의 해석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통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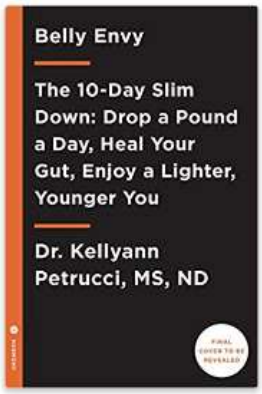
<목차>

머리말. 해석의 문제: 포스트모던 해석학에 관한 입문서
1장. 모든 것을 변화시킨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읽기
2장. 하이데거가 날린 또 다른 한 방: 해석학과 휴머니즘
3장. 가다머의 『진실과 방법』: 철학적 해석학
4장. 데리다, 그리고 해석에 관한 두 가지 해석
5장. 구조주의, 탈구조주의,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대
6장. 바티모와 로티의 익살스러운 해석학
7장. 정의의 부름과 법의 구속력
8장. 간호학에 적용된 가다머 식 해석학
9장. 포스트 휴먼의 그림자: 우리가 인간이었던 적이 있었던가?
10장. 탈근대, 탈세속적, 탈종교
11장. 간단 정리: 그래서 포스트모던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결론이 없는 결론: 신도, 심지어 니체도 사랑할 수 있다

<저자 소개>

존 D. 카푸토(John D. Caputo)는 시라쿠스 대학교 종교학 교수, 빌라노바 대학교 철학 교수로 현대 해석학과 해체 이론을 연구해온 학자이다. 저서로는 『TRUTH in 2013』등이 있다.

제목 : THE 10- DAY BELLY SLIM DOWN
가제 : 뱃살 없애기 10일 프로그램
저자 : Kellyann Petrucci
출판사: Harmony
발행일: 2018년 2월 27일
분량 : 304 페이지
장르 : 건강



***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Dr. Kellyann's Bone Broth Diet*』의 저자가 제안하는 뱃살 없애기 *10*일 프로그램**

축 처진 뱃살은 외출할 때마다 자신감을 크게 갉아먹는다. 가리고, 덮고,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아무리 애써도 몸 중앙에 떡 하니 자리잡은 묵직한 뱃살은 도드라지고,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못 입는 주된 원인이 된다. 사람들이 뱃살을 두고 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 원래 생겨. 어쩔 수 없어." "출산하고 나면 배가 날씬해지는 건 불가능해." "호르몬 문제라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떤 다이어트나 운동을 해도 뱃살은 안 빠져." 실제로 뱃살을 빼려고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지만 정작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보면, 이런 말들이 사실인 것 같다. 정말일까? 20년간 미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몸매 관리를 돕는 의사로, 자연요법 전문가로 오랫동안 활약해온 저자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단언한다. 뱃살도 얼마든지 없앨 수 있고, 외모에 자신감을 더하는 것은 물론 훨씬 더 건강하고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육수 다이어트'라는 독특한 체중 감량법으로 이미 화제가 된 저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효과를 확인한 육수와 식단 조절로 10일 만에 4.5 킬로그램을 감량할 수 있는 파격적인 방법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2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5 킬로그램에 가까운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저자의 뱃살 없애기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삼시세끼 밥 먹는 방식을 싹 바꾸는 것이다. 우리가 매끼 밥을 먹는 시점, 그 사이사이에 먹는 간식들이 열량보다 인체에 더 큰 악영향을 주는 이유는 '소화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기 때문이다. 소화기관이 휴식을 취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틈도 없이 계속해서, 그것도 많은 양의 음식이 쏟아져 들어가면 소화가 잘 안 되면서 뱃살로 쌓이고 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느낌이 따라다닌다. 저자는 하루 두 끼, 점심과 저녁을 7시간의 간격을 두고 섭취하고 아침과 점심저녁 사이에 각각 종류가 다른 육수를 섭취함으로써 소화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뱃살 없애기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복부지방을 '태우는' 육수와 식욕을 '누그러뜨리는' 육수이다. 콜라겐이 듬뿍 들어 있는 육수에 몸에 좋은 허브와 향신료, 채소의 값진 영양소가 가득 들어 있는 육수를 준비하여 쉼 없이 솟아나는 식욕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인체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다량 제공한다. 마지막 세 번째 요소는 지방을 분해하고 노화를 막는 성분으로 각광 받는 콜라겐과 단백질, 식물영양소를 과량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주식으로 삼는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 화제가 된 육수 다이어트와 더불어 단백질을 현명하게

섭취하는 법, 혈당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는 과일 대신 뱃살 감소에 도움이 되는 자몽과 각종 베리류를 많이 섭취하고 식물영양소가 풍부한 채소로 세포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활용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는 모두 저자가 제시하는 10일 식단에 반영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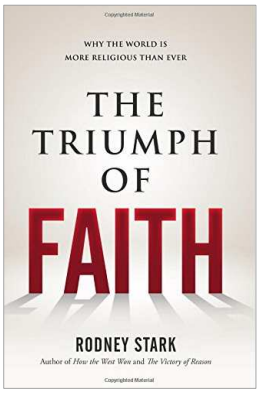
매일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채소 혹은 채소와 육수가 배합된 스프 한 컵, 그리고 단백질, 지방, 비전분성 채소로 이루어진 식사와 육수 서너 컵을 섭취하며 뱃살을 없애고 인체를 정화하는 전략이 소개된다. 다이어트가 지루하지 않도록 저자가 개발한 100가지 다채로운 레시피가 함께 제시되어 여러 가지 음식을 시도해볼 수 있다.

<목차>

머리말: 이제 뱃살에게 작별인사를
1부. 뱃살 없애기 10일 계획의 기본 원리
1장. 배에 쌓인 지방, '빨리' 없애는 방법
2장. 복부 지방과 더부룩한 뱃속을 말끔히 해결해줄 10일 식단
3장. 주의사항: 예상 시나리오- 꼭 피해야 할 두 가지 덫
2부. 뱃살을 없애줄 육수, 쉐이크, 식사
4장. 미리 준비해두면 아주 쉽다
5장. 육수로 몽땅 날려버려라
6장. 위대한 드레싱, 양념을 끼얹자
7장. 지방을 태워줄 쉐이크, "마지막 한 방"
8장. 간소한 한 끼로 힘을 더하자
3절. 뱃살을 날려줄 세 가지 추가 "동력"
9장. 태워라: 복부를 날씬하고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운동
10장. 털어내라: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 스트레스 폭파 전략
11장. 흘려 보내라: 세포가 반짝반짝 윤이 나게 해줄 뱃살 제거 해독
4절. 뱃살과는 영원히 안녕!
12장. '날씬한 배로 영원히 살기' 계획
13장. '날씬한 배로 영원히 살기' 레시피
맺음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자!

<저자 소개>

켈리안 페루치(Kellyann Petrucci)는 공인 자연요법 의사이자 영양 컨설턴트로, LA와 뉴욕에서 여러 유명인사들의 왕진 의사로도 활동해 왔다. 미국 공영방송에 '21 Days to a Slimmer, Younger You'라는 특별 프로그램으로 다이어트와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소개되었다. 그 외 '더 닥터스', '닥터 오즈 쇼', '굿모닝 아메리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왔다. 저서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Dr. Kellyann's Bone Broth Diet』 등이 있다.



제목 : THE TRIUMPH OF FAITH
가제 : 신앙의 승리
저자 : Rodney Stark
출판사: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발행일: 2015년 11월 16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종교

*** "세속주의 이론을 여러 측면에서 반박하고, 현대화가 충분히 정착되고도 뜨거운 종교적 열정이 유지되고 있는 수많은 국가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힌다." – 월 스트리트 저널**
*** 종교의 영향력은 사라졌다는 과학자, 세속주의자, 무신론자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정반대되는 자료를 제시한 책**

첨단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주나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 인체의 기능 등 한때 미지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일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저 신기하기만 할 뿐 인간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 일들을 초자연적 존재, 인간보다 위대한 신의 일로 자연스레 받아들이던 경향도 점차 줄어들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전 세계가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리라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2015년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는 '종교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에서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줄었으며 종교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결과는 로이터 등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되며 세속화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여겨졌다. 그러나 종교, 사회학 분야의 베스트셀러 저술가이자 종교 학자인 저자는 이 조사 결과는 물론 과학자, 세속주의자, 무신론자들이 양팔 벌려 반기고 있는 세속화라는 흐름은 잘못된 추정이라고 설명한다. 이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전 세계는 종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믿음이 더 깊어졌다는 것이다. 저자는 163개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초대형 조사 결과를 비롯해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를 제시하며 여전히 건재한, 오히려 더 강화되고 확대된 종교의 영향력을 이 책에서 상세히 소개한다.

전 세계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신앙심이 깊어졌다는 것이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핵심이다. 다섯 명 중 네 명은 조직화된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의식에 참석한다고 밝힌 경우가 많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개종하고 오순절 교회에 다니는 인구가 수천만 명에 달하며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도의 숫자도 어마어마하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과 중국은 기독교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슬람교와 힌두교도 증가 속도나 규모가 기독교만큼은 아니지만 최근 수세기 동안 신도가 급증했다. 불교를 제외한 대형 종교 전체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주류 종교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러시아에서는 정식 의학교육을 받은 의사보다 병을 치유한다는 주술사의 수가 더 많고, 프랑스

국민의 38 퍼센트는 점성술을 믿는다고 이야기한다. 스위스에서도 35 퍼센트의 국민이 '점성술사가 실제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거의 전 국민이 처음 자동차를 사면 신도(神道)의 힘을 빌어 안전을 기원한다.

저자는 갤럽 조사 결과와 각국의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제공한 통계 자료 등 신뢰도 높은 자료들을 종합하여 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주장을 뒤엎는 근거를 포괄적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시간이 갈수록 왜 종교가 이처럼 크게 성장하는지, 이것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목차>

머리말. 세속화되었다는 믿음, 그것이 틀린 이유
1. 전 세계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모습
2. 유럽: 거대한 환상
3. 남미 지역에서 확산 중인 교회
4. 더욱 단단해진 이슬람
5.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독실한 신앙심
6.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일본인들
7. 중국의 개종
8. "아시아의 네 마리 호랑이"와 신앙
9. 힌두교의 부활
10. 신앙심 깊은 미국
결론. 신앙심은 왜 이토록 지속될까

<저자 소개>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현재 베일러 대학교 사회과학과 교수 겸 동 대학의 '종교연구소'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퓰리처 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으며, 종교학 연구협회가 수여하는 도서상을 세 차례 수상했다. 저서로는 『The Victory of Reason』, 『The Rise of Christianity』, 『God's Battalions』 등이 있다.

DOCTOR YOU (우리 몸이 최고의 의사다) by Jeremy Howick

We are publishing in October but we've had some excellent early reviews in already:

'Read this book!' – *Deepak Chopra*

'Dr. Howick provides an accessible and thoughtful explanation of what it means to be healthy and how modern health care can lead us astray. Through engaging storytelling, he weaves together a vast body medical science, fascinating psychological research, and philosophical insights about mind and body. An ambitious and integrative book that is perfect if you are looking to intelligently navigate the maze of modern health care.' —*Ty Tashiro, author of The Science of Happily Ever After*

'Dr Jeremy Howick shines a powerful light on the conscious mind that recognises its own innate healing power. He uses clean scientific evidence to validate the mind -body connection and shows in an inspired and simple-to-understand way how conscious and positive thinking can augment the inner healing intelligence of the body thus transforming health and wellbeing. This is a must read for all who wish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health and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ir wellbeing.' —*Raoul Goldberg, author of Addictive Behaviour: The Struggle for Freedom*

'Jeremy is a very intelligent thinker and writer about medicine' —*Muir Gray, author of Sod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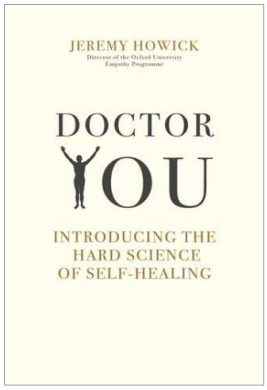
'Jeremy Howick knows placebos and how to make it understandable to the public. He's a philosopher who understand the big picture and a researcher who understands the details that make good science.' —*Ted Kaptchuk, Harvard professor*

'Jeremy Howick is a real expert on the placebo effect, which plays a major role in the proposed book. He can be relied on to know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technical literature, thoroughly, and to provide a clear, serious and just account of it.' —*Nancy Cartwright, philosopher of causality*

'Engaging, informative, Accessible and easy to read, Doctor You will tell you all that you need to know about how the body works. Based on his own extensive research, Dr Howick will arm you with knowledge empowering you to make the right choices when it comes to your health…A must read If you are a parent of a child with ADHD, anxiety, or for anyone interested in improving their health.' —*Virginie Chiquri, author of Thinking Mom's Revolution*

'This fascinating book ranges over a broad range of evidence, from telling incidents, to huge comparative scientific studies with thousands of human subjects, and many things in between, all aimed at helping you lead a more healthy, vigorous, active and meaningful life. Engagingly written

by an academic who can row his own boat (really!), who is as adept at yoga as he is at statistics, it is really a good read.' —*Dan Moerman, medical anthropologist*



제목 : DOCTOR YOU
가제 : 우리 몸이 최고의 의사다
저자 : Jeremy Howick
출판사: Coronet
발행일: 2017년 10월 1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건강

*** "저자는 자연치유의 과학적 원리를 발견했다. 어서 이 책을 읽어보길!" – 디팍 초프라**
*** "건강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쉬우면서도 깊이 있게 설명하고 현대사회의 건강관리 방식은 길을 잃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The Science of Happily Ever After*』의 저자 타이 타시로**
*** "명쾌한 과학적 근거로 몸과 마음이 연계되어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 『*Addictive Behaviour – the Struggle for Freedom*』의 저자 라울 골드버그**

미국 전체 인구의 20 퍼센트, 영국 노년층의 절반, 캐나다 노년층의 3분의 2가 매일 최소 다섯 가지의 처방약을 복용한다. 하루에 몇 번씩 시간 맞춰 입에 약을 털어 넣는 일이 당연한 일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병과도 싸우고, 이 수많은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겨우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열명 중 한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공부 시간에 일정 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아이들은 메탐페타민이 함유된 약을 처방 받는다. 현대 의학은 그야말로 약이 넘쳐나는 실정이다. 과연 이 수많은 약들이 다 효과가 있을까? 수시로 제기되는 아이러니한 의문 중 하나다. 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으면 왜 이렇게 아픈 사람은 자꾸 늘어만 갈까? 최첨단 기술과 똑똑한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내놓은 현대의학의 성과에 어딘가 단단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의학은 발전하지만 의료계가 이야기하듯 과거보다 진단 기술이 발전하여 환자가 더 많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건강 문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위약 연구자인 저자는 이 책에서 약을 외부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약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인간의 타고난 치유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면 막대한 의료비용과 그보다 심각한 약물의 부작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저자는 왜 이것이 허황된 믿음이 아닌 실제 가능한 일인지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 낱낱이 보여준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의료비용과 약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대의학의 구조는 개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러나 '경이롭다'는 찬사가 쏟아지는 현대 의학적 원리가 인체

가 지닌 자연치유력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약과 전혀 다를 바 없이 통증을 가라 앉히고, 마치 수술을 받은 것처럼 관절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간 심리 상담을 받은 것처럼 우울증을 해소하는 약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다. '엔도르핀'의 어원이 '몸에서 만들어지는 모르핀'이라는 것도 인체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러한 자연 치유력과 더불어 최근 연구에서는 마음의 상태가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절한 사회적 환경이 갖추어지면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약물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저자는 최신 연구로 밝혀진 수많은 근거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약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지 그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 약을 이용해야 할 때와 우리 몸의 치유력에 믿고 맡겨야 할 때를 구분하는 방법,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약이 해롭다고 해서 일체 약을 끊어버리거나 대안요법이 무조건 건강에 이롭다고 맹신해서는 안 되는 이유 등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분석이 제시된다.

건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광고나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휘둘리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법, 그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건강서다.

<목차>

머리말: 넘쳐나는 약
1부: 우리 몸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여주는 증거(그 능력을 확인하는 법)
1. 우리 모두 놀라운 몸을 가지고 있다
2. 어떤 증거를 믿어야 할까
3. 이야기, 전문가의 의견에 주의하라
4. 위약의 강력한 효과
2부: 투쟁과 도주, 영양과 양육
5. 스트레스 반응
6. 비틀스가 요가 수련자로부터 휴식을 배운 사연
7. 결코 마음으로만 되는 건 아니다
3부: 내면의 치유 능력
8. 긍정적인 생각의 힘
9. 조건화: 내면의 약국을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
(이하 생략, 총 5부, 15장으로 구성)

<저자 소개>

제레미 호윅(Jeremy Howick)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자로 60편이 넘는 논문과 교과서를 썼다. 위약의 효과를 밝힌 세계적인 연구자로 「타임」지, 「워싱턴 포스트」, BBC 등에 연구 업적이 소개됐다.